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4월 1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연합뉴스

		"쓰레기 담으며 걸어요"...강원도 제2청사 직원들 '쓰담' 봉...	1
강원도민일보	22면	심오섭 도의원 글로벌 크라운 지방자치부문 대상	2
江原日報	21면	심오섭 도의원 글로벌 크라운 대상 지방자치부문 수상	2
시사일보	온라인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24 대한민국 글로벌 ...	3
강원도민일보	15면	철원소방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4
강원도민일보	22면	도학원연합회 자질 함양 연수	4
강원도민일보	12면	동해시 청년도전지원센터 개소식	4
江原日報	16면	화천 여협 이·취임식	5
강원도민일보	15면	화천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취임식	5
江原日報	08면	"한 해 2억명 찾아오도록 외식업 활성화"	6
강원도민일보	06면	"활기찬 강원·살 맛 나는 외식업계 조성 앞장"	7
江原日報	21면	"천혜의 자연·맨발로 느끼는 자유... 걷기 좋은 춘천"	7
강원도민일보	05면	"하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봄꽃축제 지자체 속알이	8
江原日報	01면	강원FC 홈경기 첫 매진	9
江原日報	23면	강원FC 만원관중 홈경기 아쉬운 무승부	9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대도 의대증원 맞춰 '지역의사 전형' 도입해야"	10
江原日報	11면	횡성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조성 본격 추진	10
강원도민일보	12면	동해 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 4건 선정	11
江原日報	12면	꽃보다 먼저 온 봄놀이 '강릉은 축제중'	12
강원도민일보	06면	정부 노력에도 아랑곳...생필품 167개 가격 올랐다	13
江原日報	16면	화천군 청소년 해외 배낭연수 무상 시행	13
강원도민일보	17면	'MZ 저연차 공무원 잡아라' 정부 개선책 발표	14
江原日報	08면	설 특수 2월 소비심리 반짝 회복	14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 다원지구 조성 본격화 토지보상 쟁점	15
江原日報	05면	인제 DMZ서 산불 ... 산림 5,000㎡ 소실	15
江原日報	15면	고랭지 배추 대안 정선 고추 명품화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유보 통합' 구체적 지침 마련해야	17



2024년 03월 29일 (금)

사회

"쓰레기 담으며 걸어요"...강원도 제2청사 직원들 '쓰담' 봉사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직원들이 29일 양양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기념식에 참석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성공을 기원하며 나무를 심고 환경 정화 활동을 했다.

직원 110여명은 약 3시간 동안 남대천 일원 약 7.2 구간에서 쓰담 걷기(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줄임말)를 했다.

글로벌본부 직원들은 지난해 9월 세계산림엑스포 행사장에서도 환경 정화 활동을 하며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꾸준히 친환경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양송이조각공원에서 열린 식목일 기념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와 권혁열 도의장을 비롯해 관계 기관 직원 등 총 250명이 참석해 나무를 심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의 중요성을 알렸다.

conanys@yna.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01일 (월)

인물 22면



심오섭 도의원 글로벌 크라운 지방자치부문 대상
심오섭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서정숙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2024대한민국 글로벌 크라운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4년 04월 01일 (월)

인물 21면



심오섭 도의원 글로벌 크라운 대상 지방자치부문 수상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 지난달 29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글로벌 크라운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받았다.

2024년 03월 31일 (일)

시사일보

전국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24 대한민국 글로벌 크라운 대상”수상

전영선 기자



▲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24 대한민국 글로벌 크라운 대상”수상

[시사일보=전영선 기자]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글로벌 크라운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글로벌 크라운 대상’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정치, 지방자치, 국제, 경영, 사회, 의료, 문화 분야에서 대한민국 혁신 성장동력 가치를 인정받은 국회의원, 교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기업대표 등에게 수여하며, 10개 부문 38명에게 시상했다.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강릉시 제2선거구에서 당선되어 현재까지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민을 위해 행동하는 선진 의회상 정립에 기여해 왔고 집행부와 도민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생활정치를 몸소 실천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세계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조례,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0여 건의 조례를 제·개정 했고 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심오섭 의원은,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실천하고자 꾸준히 노력했고, 그것이 높게 평가받아 수상하게 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도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성일보, 뉴스쑈 등 39개 언론사 보도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01일 (월)

지역 15면



철원소방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철원소방서(서장 정재덕)주최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이 최근 철원종합운동장에서 이현종 군수, 박기준 의장, 김정수·엄기호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01일 (월)

인물 22면



도학원연합회 자질 함양 연수 강원도학원연합회(회장 박문영)는 최근 춘천평생교육원에서 허영 국회의원, 이승진 도의원, 신성열 춘천시의원과 학원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학원(독서실·교습소) 운영자 자질 함양 연수'를 실시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01일 (월)

지역 12면



동해시 청년도전지원센터 개소식 동해시는 최근 동성프라자에서 이동호 동해시의장, 최재석 도의원, 박종을 경제관광국장, 김희태 청년도전지원센터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도전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江原日報

2024년 04월 01일 (월)

지역 16면



화천 여협 이·취임식 화천군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이 지난달 29일 화천여성회관에서 최문순 군수와 제9대 김명자 이임회장, 제10대 김경이 신임회장,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01일 (월)

지역 15면



화천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 화 천 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이 최근 화천 군 여성회관에서 최문순 화천군수, 제9대 김명자 이임회장, 제10대 김경이 신임회장, 박대현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4년 04월 01일 (월)

경제 08면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회장: 전수원)는 지난달 29일 춘천 스키컨벤션에서 김진태 도지사, 양숙희 도의원,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 등 내빈 및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 해 2억명 찾아오도록 외식업 활성화”

한국외식업중앙회 도회 정기총회
회원 16명 기관·단체장 표창 수여

강원지역 외식인들이 ‘관광 1번지 강원’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앞장선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회장:전수원)는 지난달 29일 춘천 스키컨벤션에서 제5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도내 외식인들이 화합을 다지고 외식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이 자리에는 김진태 도지사, 양숙희 도의원,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 등 내빈 및 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도내 외식인 권익 향상에 기여한 회원 16명이 기관·단체장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한기만 벽동지 대표, 이명희 포락정 대표, 이미래 일미숯갈비 대표 등은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회원사 자녀 3명에게는 장학금이 전달됐다.

전수원 한국외식업중앙회 도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외식업을 하는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살맛나는 강원, 활기찬 강원을 만들 수 있다”며 “관광 1번지 강원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앞장서는 외식업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축사에서 “강원도의 인구는 150만명밖에 안 되지만 지난해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 외부인이 1억5,000만명을 기록했다고 한다”며 “올해는 2억명까지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외식업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현이기자

강원도민일보

“활기찬 강원·살 맛 나는 외식업계 조성 앞장”

한국외식업중앙회 도지회 정기총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회장 전수원)는 최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제5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회장, 양숙희 도의원, 도지회 회원 등을 비롯해 200여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 장학금 수여가 진행됐다. 도지사 표창에는 횡성군지부 벽동지 등 4명, 도의장 표창에는 정선군지부 관광농원가든 등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는 지난 29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제5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황선우

2명, 중앙회장 표창에는 춘천시지부 두메막국수 등 5명, 도지회장 표창에는 동해시지부 장군주먹고기 등 5명, 총 20여명이 수상했다. 또 2023년도 세

2024년 04월 01일 (월)

경제 06면

입·세출 결산 감사보고 및 승인,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안) 등 안건의 의결됐다.

전수원 회장은 “외식업계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 위기 속 힘과 지혜를 모아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며 “외식업계가 살맛나는, 활기찬 강원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 관광 1번지 강원도의 명성을 빛내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도에서도 우리 외식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공급·배치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손님들이 더욱 많이 오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선우

江原日報

2024년 04월 01일 (월)

인물 21면

“천혜의 자연·맨발로 느끼는 자유… 걷기 좋은 춘천”

“호반의 도시 춘천을 전국 최고의 맨발 걷기 성지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춘천지회(회장 정미경)가 지난 31일 춘천시 공지천 하천정원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지난해 2월 맨발 걷기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 결성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춘천지회는 1년여간 맨발걷기길 발굴, 운영진 구성 등의 준비를 거쳐 발대식을 갖게 됐다. 현재 회원은 330여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발대식은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중앙회장과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김진호 춘천시의장, 원미희 도의원, 이건설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장,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이돈섭 대한적십자사 회장 자문위 고문 등과 회원 80여명이 참석했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춘천지회 발대식… 시 걷기 코스 조성 추진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춘천지회 발대식이 지난 31일 춘천시 온의동 수변공원에서 정미경 지회장, 박동창 중앙회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원미희 도의원, 이건설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장,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이돈섭 대한적십자사 회장 자문위 고문을 비롯한 회원,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남덕기자

다. 육동한 춘천시장도 발대식에 앞서 회원들을 만났다.

정미경 지회장은 “많은 관심과 지

원으로 맨발 걷기길 조성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더 많은 관광객들이 춘천을 찾도록 맨발 걷기길 발굴이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창 중앙회장은 “호반의 도시이 자신이 많은 춘천의 환경은 맨발 걷기길 조성을 위한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다”며 “춘천이 새로운 맨발 걷기 성지가 되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넘어 대한민국이 맨발 걷기로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강원일보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박동창 중앙회장의 특강과 맨발 걷기 치유 사례 공유, 맨발 걷기 등이 이어졌다.

땅과 신체가 직접 접촉하는 맨발 걷기는 성인병 예방, 불면증 완화, 면역력 증가 등의 효과가 알려진 운동이다. 춘천시는 지난해 맨발 걷기 7.4km 코스를 개발, ‘봄내맨발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윤호·최두원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01일 (월)

사회 05면

“하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봄꽃축제 지자체 속앓이

늦은 개화에 황사까지 기승

‘꽃 없는 봄축제’ 방문객 아쉬움

개막 연기·분산 개최 긴급공지

포근한 봄날씨가 찾아온 가운데 강원도 대부분 지역이 주말 동안 중국에서 내려온 황사로 인해 뿌연 하늘을 보았다. 벚꽃의 늦은 개화로 봄꽃축제를 준비하던 지자체는 무심한 하늘을 탓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9일 중국발 황사가 기승을 부리면서 강원 지역 미세먼지(PM-10) 수치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상승, 이날 오전 8시 원주중앙동은 매우나쁨($151\mu\text{g}/\text{m}^3$ 이상) 수준의 4배에 달하는 m^3 당 $600\mu\text{g}$ 을 기록했다. 주말 동안 황사는 계속 이어져 지난 30일 오후 8시 홍천은 $165\mu\text{g}/\text{m}^3$, 31일 원주중앙동 $158\mu\text{g}/\text{m}^3$ 의 수치를 보였다.

올 봄철 예년보다 황사 발생일 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케이웨더 예보센터는 “황사 발원에 중요한 강한 상승기류를 유발하는 저기압의 발달 및 이동, 통과로 황사 발원은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황사를 뚫고 벚꽃 구경에 나선 시민들은 피지 않은 꽃에 실망하기도 했다. 주말동안 강릉지역 도심에서는 벚꽃축제가 개최됐지만 예상치 못한 추운 날씨가 찾아와 ‘꽃 없는 꽃 축제’로 진행

돼 방문객들의 아쉬움을 더했다.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도심권 벚꽃축제 ‘2024 솔솔동행축제 솔솔블라썸’의 벚나무 거리는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강릉 남산공원에서 열린 ‘2024년 새봄맞이 축제’ 현장에도 방문객을 찾기 어려웠다. ‘경포벚꽃축제’는 벚꽃개화가 늦어질 것을 예상해 기존 29일에서 4월 5일로 일주일 가량 축제 개막을 연기했다.

속초시도 ‘2024영랑호벚꽃축제’ 개막을 사흘 앞둔 지난 27일 긴급 공지를 통해 올해 벚꽃축제를 2번에 나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날씨 변덕에 노심초사하던 속초시는 SNS에 “죽을죄를 짓습니다. 하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며 속초시의 마스코트 짜니와 래요가 속초시청 관계자와 함께 사죄의 절을 올리는 이색 홍보전을 펼쳐 오히려 국민적인 공감과 관심을 모았다. 속초시는 축제를 1차 3월 30일~31일에 이어 2차 4월 6~7일 두 차례 나눠 열겠다고 했다.

김영숙 속초시 관광마케팅축제팀 팀장은 “속초 영랑호의 벚꽃이 아름다워, 축제를 기획하게 됐다. 영랑호에서 바라보는 설악산과 울산바위가 절경이다. 오는 6~7일 많이 오셔서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 -1~4도, 영동 3~7도며, 낮 최고기온은 영서 15~18도, 영동 14~17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연재·신재훈

2024년 04월 01일 (월)

江原日報

종합 01면



강원FC 홈경기 첫 매진 지난 31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라운드4 강원FC와 FC서울의 경기에 1만144명의 팬들이 몰리면서 관중석이 꽉 차 있다. 강원FC 구단에 따르면 홈 경기 매진은 유료 관중 집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23면

신세희기자

2024년 04월 01일 (월)

江原日報

스포츠 23면

강원FC 만원관중 홈경기 아쉬운 무승부

**K리그1 4라운드 FC서울전 1대1 시즌 개막 후 연속 무승
관심 모은 린가드는 결장... 2군단 복무 BTS 뷔 관람 눈길**



강원FC가 만원 관중과 BTS 멤버 뷔(본명:김태형)가 지켜본 앞에서 시즌 첫 승 사냥에 실패했다.

윤정환 감독이 이끄는 강원은 지난 31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4라운드 FC서울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다. 이로써 강원은 개막 4경기 연속 무승(3무 1패)을 이어가게 됐다. 승점 3점으로 리그 9위에 그쳤다.

이날 송암스포츠타운에는 만원 관중이 몰렸다. 일찌감치 온라인 판매분이 매진된 데 이어 이날 현장 판매분까지 모두 팔리며 2018년 유료관중 집계 후 사상 처음으로 홈경기가

매진됐다. 공식 관중수는 1만144명이다. 윤정환 감독은 경기 전 "춘천에 이 정도로 관중분들이 모이신 건 처음이라고 들었다. 좋은 내용과 결과로 보답해드려야 또 찾아주시고으로 본다"며 의지를 다졌다.

이날 대부분의 관중은 서울의 특급 외국인 공격수 제시 린가드를 보기 위해 몰렸지만 린가드는 무릎 부상으로 인해 춘천 원정에 동행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아쉬움을 해결할 글로벌 슈퍼스타가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육군 제2군단에서 군 복무 중인 글로벌 인기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가 경기장을 찾은 것이다. 글로벌 메가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와 함께 전광판에 뷔

가 등장하자 경기장은 함성으로 가득 찼다.

만원 관중과 뷔의 응원을 뒤에 업은 강원은 서울을 압도했다. 점유율 57.6대42.4, 슈팅수 15대5, 유효슈팅수 8대3 등 각종 지표에서 크게 앞섰다. 하지만 선제골은 서울의 몫이었다. 후반 26분 강원의 빌드업 실수를 놓치지 않고 윌리안이 선제골을 터트렸다.

동점골을 위해 몰아붙이던 강원은 후반 40분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비토르 가브리엘의 슛을 최철원 골키퍼가 쳐내자 이상현이 재차 슈팅을 시도해 골문을 갈랐다. 이상현의 리그3호골. 하지만 강원은 동점골을 터트리자 1분 만에 이지솔이 경고누적으로 퇴장 당하며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됐다.

수적 열세에도 강원은 서울에 밀리지 않고 치열한 경기를 펼쳤다. 후

반 추가시간 5분에는 가브리엘이 서울 센터백 솔라카의 공을 가로챈 뒤 솔라카의 다이렉트 퇴장을 이끌어냈다. 솔라카는 공을 뺏긴 뒤 가브리엘의 다리를 고의로 붙잡는 비인사적인 행동을 보여줬고, 이는 관중들의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행동이 됐다.

관중들은 엄청난 함성과 열기로 강원 선수들에게 힘을 보였고, 선수들은 끝까지 서울을 몰아붙였다. 몇 차례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지만 아쉽게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못했고 결국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다.

윤정환 감독은 "많은 관중이 찾아주셨는데 결과가 아쉽게 됐다"며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잘 풀어나갔는데 실점 상황에서 실수가 나왔고, 결정력도 미흡했다.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바로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찬기자 sckwon@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01일 (월)

종합 04면

“강원대도 의대증원 맞춰 ‘지역의사 전형’ 도입해야”

경상대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에

강원지역 공공의료계 요구 확산

정부-지자체 제도적 지원 강조

군 면제·근무환경 개선 등 필요

경상국립대가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을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 의사 전형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강원대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역 공공의료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공의료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31일 본지 취재결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입학 정원이 76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경상국립대는 10명 내외 규모로 지역의사 전형을 도입을 고민 중이다.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고, 대신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강원대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대는 이번 증원으로 정원 (132명)이 기존 (49명) 대비 83명 늘었다.

서영준 영월의료원장은 “지역의사제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 의사 계약제는 결국 의사들 몸값을 높여 지방자치단체간 유치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각 국립대가 자발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기보다는 정부가 의대 증원에 맞춰 일정 비율은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영 총장은 최근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에서 “아직 정원 132명 증원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후 대입전형에 확정되면 이 과정에 서 지역의사제도 일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도 “민감한 사안이고, 대학에서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경상대 모델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은 해당 전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 지원과 정부,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강원대 의대 소속 A교수는 “지금의 상황으로는 졸업 후 10년을 지역에 남게 해도 인턴, 레지던트에 군 대까지 다녀오면 7-8년이 지나가 버린다. 결국 2-3년만 실제로 지역에 있다가 떠나게 된다”면서 “지역의사로 남는 인력은 군 면제를 시켜준다면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B교수도 “수도권 병원과 지역 병원 간 인프라 차이가 크다 보니 학생들에게 무조건 ‘남아라’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근무 환경, 금전적 보상 등 여러 면에서 지역에 남았을 때 얻는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민영

江原日報

2024년 04월 01일 (월)

지역 11면

횡성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조성 본격 추진

【횡성】이달부터 북계리에 조성되는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횡성군은 그동안 지역발전의 저해 요소였던 북계리 군부대 이전이 완료된 후 지난해 12월부터 군사시설물 철거 작업을 벌여 올해 2월 모두 정비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해당

지역 마을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어 사업을 설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 작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상호 협조 사항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사업부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 평가를 거쳐 이달 중으로 감정 평가 결과를 토지 소유주에게 통지하고, 보상 협의를 벌인다.

보상이 완료되면 횡성여고에서 가담2리로 이어지는 진·출입 도로 개설 공사가 착공된다. 군은 공사가 진행 중인 경사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를 비롯해 6개 사업에 1,318억 원 투입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유학열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01일 (월)

지역 12면

동해 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 4건 선정

국도비 1억9500만원 확보

수리왕 선발대회·체험 등

동해지역의 지역문화유산 4건이 문화재청의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민·관광객들에게 역사문화향유 기회가 제공된다.

동해시는 지난해말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2024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에 3개 분야 4건이 선정됨에 따라 올해 본격적으로 우리고장 문화유산 알리기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공모 선정으로 확보된 국도비 1억9500만원 포함, 총사업비 3억3700만원을 투입, 생생문화유산 활용사업, 향교·서원문화유산 활용사업, 전통산사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12년 연속 공모에 선정돼 시의 대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정착한 '생생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오는 30일 동해구상수시실에서 수리왕 선발대회를 시작으로 아리울한마당과 생생블루오션 등 '물로 즐기는 오감놀이터, 아리울'로 펼쳐진다. 또 만져보는 망상농악, 온 가족이 즐기는 농악운동회 등의 프로그램인 '들에 산에 올리는 흥겨운 망상농악'도 준비되고 있다. 시는 '향교·서원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2015년·2020년 우수사업에 선정된 '감성아뜰리에, 용산서원' 프로그램도 진행, 지역 유교 교육의 소산인 용산서원의 역사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공모에 선정돼 방문객들에게 호응을 얻어온 '전통산사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올해도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무릉계곡 내 삼화사 일원에서 불상과 탑·수륙재 등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공모되고 있는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체험·교육 등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문화유산 이해를 돕는 문화재청의 대표사업이다. 전인수

江原日報

2024년 04월 01일 (월)

지역 12면



◇강릉 강남동 남산 '새봄맞이 축제'가 지난 29~31일 남산공원에서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시의장, 김태형 강남동발전협의회장, 최상보 강남동주민센터 동장을 비롯한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권태명기자

꽃보다 먼저 온 봄놀이 '강릉은 축제중'

강남동 새봄맞이축제 다양한 공연·이벤트 진행
술올블라썸 축제 먹거리부스·플리마켓 등 운영

【강릉】강릉지역 봄 축제장이 봄기운을 즐기려는 관광객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지난 31일 남산공원 일대는 '강남동 새봄맞이 축제'를 즐기 위한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볐다.

꽃샘추위로 벚꽃은 피지 않았지만 이번 행사를 주관한 강남동발전협의회는 밴드 공연과 트로트 가수 공연, 관노가면극 등 행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

행하며 손님들을 맞았다.

김아진(43·강릉시 흥제동)씨는 "아직 제대로 피지 않아 꽃은 보기 힘들지만 두 아이와 남산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여유롭게 쉬다 간다"고 말했다.

주말 교동 술올지구 일대도 지난달 28일부터 열리고 있는 '2024 술올블라썸축제' 분위기로 흥겨웠다. 축제 기간 행사장 일대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낮부터 저녁까지 먹거리 부스와 소상공인 연계 플리마켓, 버스

킹 공연 등이 이어져 축제의 분위기를 돋웠다.

교1동벚꽃축제추진위원회 역시 벚꽃이 피지 않아 행사를 1주일가량 연기하는 등 축제 준비에 어려움이 겪기도 했지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축제장을 찾은 손님들을 즐겁게 했다.

한편 최근 강릉지역에 따스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4월 초에는 벚꽃 만개가 유력한 가운데 강릉의 대표적인 벚꽃축제인 '경포 벚꽃축제'는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류호준기자 gwhojun@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01일 (월)

경제 06면

정부 노력에도 아랑곳...생필품 167개 가격 올랐다

소비자물가지수 3%대 상승 전망
가격 상승 생필품 평균 9% 인상
기름값 기름세 물가 부담 가중

고물가 장기화 현상의 원인으로 식료품 물가가 지목, 주요 생활필수품 절반 이상이 판매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운데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대 초반'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물가가 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의 생필품가격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생필품 11개 품목 306개 상품 가운데 지난해 같은 달보다 판매가가 오른 상품은 167개로 집계, 가격이 오른 상품의 평균 상승률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오른 상품의 평균 상승률은 과자·빙과류 7.1%, 수산물 가공품 9.1%, 양념·소스류 9.8%였다. 양념·소스류에서는 설탕·소금과 같은 필수 조미료 판매가가 지난해보다 10~20%나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가중을 견인했다. 일반 생활용품으로 분

류되는 가사·위생용품은 77개 중 45개 판매가가 올랐으며 평균 상승률은 8.8%였다.

본지 취재 결과 지난 22일 기준 강원 지역 대형마트의 백설하얀설탕(1kg) 평균 판매 가격은 2380원으로 1년전(1980원)보다 20.2% 비싸졌다. 오뚜기참기름(320ml) 평균 판매 가격은 1만600원으로 1년전(9280원) 대비 14.2% 올랐다. 순창 오리지널 우리쌀 찰고추장(1kg)과 딸기잼(500g)은 각각 12.9%, 16.7%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에 더해 각종 양념·소스류 가격 상승

이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휴대파(500~800g)의 평균 판매가는 5565원으로 지난해 3월 가격(3666원)보다 51.80% 비싸게 팔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먹거리 물가 상승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번주 발표될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 대비 '3%대 초반'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농수산물값 강세가 주춤해지기는 했지만, 최근국

제유가와 원·달러 환율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3월 넷째 주 강원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당 1648.62원, 경유는 1당 1549.92원으로 모두 전주 보다 올랐다.

한편 각종 물가 오름세에 편의점도 물가안정에 동참, 생활필수품과 주요 신선식품 가격을 인하한다.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은 밀가루, 딸기, 깻마늘 등의 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황선우 woo6745@kado.net

江原日報

2024년 04월 01일 (월)

지역 16면

화천군 청소년 해외 배낭연수 무상 시행

군 사전 설명회 개최
여름방학 중 9일 진행

【화천】화천군이 올해도 청소년 해외 배낭연수를 무상으로 시행한다.

군은 지난달 30일 화천커뮤니티센터 공연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024 청소년 해외 배낭연수 사전 설명회'를 열고 올해 사업 계획을 밝혔다.

연수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중 9일

간 진행된다.

올해 배낭연수 역시 방문 국가나 도시 제한은 없지만 예년과 달리 세계 100대 대학 탐방 의무 조항이 포함됐다.

대상은 중학교 3학년과 고교 1, 2학년 학생들로 모두 11팀이다. 각 팀당 인원은 6명으로 모두 66명이 연수에 참여하게 된다.

각 팀에는 1명씩 공무원이 배치돼 안전을 관리한다.

군은 사내권역은 4월 9일, 화천권역은 4월 11일에 접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 계획을

설명하고 연수계획서 작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 학생 선발은 올 5월 4일 1차 연수계획 발표에 이어 2차 심층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천군은 2015년부터 해외 배낭연수를 진행하며 지난해까지 모두 28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최문순 군수는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마음껏 가슴에 담아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기영기자 kyjang3276@

강원도민일보

‘MZ 저연차 공무원 잡아라’ 정부 개선책 발표

6급 이하 실무직 2000명 직급 상향

정부가 6급 이하 젊은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막기 위해 파격적인 처우개선을 내걸었다. 지방직 포함 6급 근속승진 비율이 확대되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제한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원주출신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마

련하고 6급이하 공무원 2000명의 승진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MZ세대(1980년대 초반 생~2000년대 초반 생)’를 중심으로 조기퇴직하는 공무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데 따른 대책이다. 최근 5년새 이들 연령대 공직자의 퇴직자수는 2019년 6663명에서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으로 2배가량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위직급 공무

2024년 04월 01일 (월)

종합 17면

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부처별 직급 조정대상자와대상업무의 선별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평균 승진소요가 오래 걸리는 부처나 인력 감축된 기관을 중심으로 9급 공무원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국가직과 지방직 관계없이 현재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 비율을 현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도 횟수 제한을 없앤다. 박창현

江原日報

설 특수 2월 소비심리 반짝 회복

2024년 04월 01일 (월)

경제 08면

강원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발표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93.9’

전년비 16.2% ↑ 19개월만 상승

광공업 생산지수는 14.5% 급감

지난 2월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비심리가 설 명절 영향으로 19개월 만에 ‘반짝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금리 및 고물가 장기화 등 영향은 여전히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크게 악화됐다.

강원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강원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강원자치도 내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3.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2% 증가했다. 2022년 8월부터 18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지난 2월 첫 상승 전환됐다. 특히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2% 급증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주요 유통업체의 지난 2월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7% 증가한 1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 신장했다.

전문가들은 2월 설 명절을 전후해 도내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 등 대내외적 악재는 여전한 만큼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처럼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도내 산업활동 수준을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2월 도내 광공업 생산지수는 96.5로 전년 동월 대비 14.5% 급감했

다. 2020년 5월(-14.5%) 이후 3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의료정밀광학(-52.1%), 음료(-7.2%), 자동차(-16.3%) 등의 생산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 이에 광공업 출하 또한 전년 동월 대비 9.6%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형소매점 판매가 증가한 것은 설 명절이 지난해엔 1월에 있었고, 올해에는 2월에 있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 등으로 소비여건은 여전히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건설경기의 ‘바로미터’인 건설수주액은 2월 2,487억원으로, 전년 동월(956억원) 대비 160% 급증했다. 건축부문에서는 신규주택, 학교, 관공서 등에서, 토목부문에서는 도로·교량, 치산·치수 등의 수주 증가 영향이 컸다. 이규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01일 (월)

지역 09면

춘천 다원지구 조성 본격화 토지보상 쟁점

4800세대 내년 10월 착공 목표
도청사 보상 등 행정절차 돌입
주민 "사업비 조달계획 공개해야"

4800세대 규모로 추진되는 춘천 다원지구 조성 사업이 내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춘천 다원지구 2차 주민설명회가 31일 오후 동춘천농협에서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민 설명회를 주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지역본부는 내년 10월 다

원지구 조성 사업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LH관계자는 "8월 보상계획을 공고해 4분기 보상에 들어가겠다"며 "내년 6월 문화재조사를, 내년 10월에는 조성 공사에 착공하겠다"고 했다. 동내면 신촌리 일원 54만㎡에 조성되는 다원지구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4800여 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08년 거두지구 개발 사업으로 시작돼 16년 만에 착공이 구체화 된 셈이다.

다만 토지보상은 다원지구 조성 사업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원지구의 경우 사업부지의 80%가 사유지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사업

자 측이 구체적인 사업비 조달 계획을 밝혀야 하고 시세보다 높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우리 땅으로 개발하는 사업인 만큼 공개가능한 범위 안에서 총 사업비에 대한 플랜을 지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시세보다 더 값이 나와야 보상이다. 시세보다 낮다면 차라리 팔지 보상을 받을 이유 없다"고 했다.

다원지구 조성 사업과 맞물려 학곡지구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데다 강원특별자치도청사보상이 구체화 되고 있어 춘천 동남권 발전도 본격

도에 오를 전망이다. 학곡지구의 경우 상반기 공공용지 분양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개발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다원지구와 학곡지구 인근에 함께 조성되는 강원특별자치도청사 신청사의 경우 7월부터 주민들과 보상 협의에 들어간다. 학곡지구와 다원지구 강원특별자치도청 신청사 사업까지 잇따라 완료되면 춘천 동남권 일원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게 춘천시 입장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도시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오세현·박재혁

江原日報

2024년 04월 01일 (월)

사회 05면

인제 DMZ서 산불 ... 산림 5,000㎡ 소실

'건조·강풍' 화재 속출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주말, 강원지역에서 화재사고가 속출했다. 지난 31일 낮 12시14분께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비무장지대(DMZ)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불이 나자 산림·소방당국 등은 헬기를 비롯한 장비 11대와 인력 30여명을 투입, 진화 작업에 나서 4시간여만에 주불을 잡았다. 이 화재로 산림 5,000여㎡가 불에 탔다.

상가 화재도 잇따랐다. 지난달 30

헬기 투입 4시간여만에 진화
태백·속초·정선·화천서도 불

일 오후 8시59분께 태백시 황지동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 점포 4개를 모두 태우고 출동한 119소방대원에 의해 4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에 앞서 오후 3시26분께 속초시 금호동의 한 오토바이 점포에서도 불이 나 상가 1동(41㎡)과 오토바이 10대가 소실됐고, A(79)씨가 대피를 하던 중 연기를 흡입하고 이마에 찰과상을 입었다.

같은 날 낮 12시9분께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의 한 식품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공장 내부 132㎡를 태우고 출동한 119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의 한 주택에서도 이날 오전 10시42분께 불이 나 주택 건물 1동(83.9㎡)을 모두 태웠다. 인제군 북면 원통리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날 오전 10시56분께 화재가 발생해 집 내부 55㎡가 불에 타는 피해가 집계됐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도내

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071건이다. 월별로는 봄철인 3월(611건)과 4월(609건) 순으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

김진문 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봄철 동안 각종 예방대책을 추진해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동반되는 만큼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준경기자 lean@kwnews.co.kr

江原日報

2024년 04월 01일 (월)

지역 15면

고랭지 배추 대안 정선 고추 명품화

군 연구용역 보고회
배추 가격 등락 심해
고추 브랜드 개발 논의

【정선】가격 등락이 심한 고랭지 배추를 대신할 정선 고추의 명품화 사업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지난달 29일 정선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정선 고추 명품화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최근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 고추 가격 약세와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선 고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선구 정

선부군수를 비롯한 농업인 단체, 생산 농가, 농협,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선 고추 재배기술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생산기반 및 가공설비기반 조성, 유통 차별화 시스템 구축,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선군농업회의소는 앞선 지난달 25일 북평면 종합복지회관에서 고추 생산농가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선 고추 생산자 연합회’를 조직하고, 정선 고추 명품화 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강선구 부군수는 “정선군의 고품질 고랭지 고추가 흠소평, 온라인, 전문 유통점을 통해 널리 판매될 수 있도록 정선 고추 명품화 체계를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01일 (월)

사설/칼럼 19면

‘유보 통합’ 구체적 지침 마련해야

-보육예산이관 방식 등 불확실, 차질 우려

유아 교육과 보육을 합친 ‘유보 통합’이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을 관리하는 교육부와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로 나누어진 현행 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됩니다. 이런 시안이 보고되긴 했지만,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기에 실행 계획을 발표해 원활하게 정책이 추진되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보 통합은 늘봄학교와 함께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의 연계 사업입니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은 최근 국회에 ‘유보 통합 추진 주요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교사 자격·양성 체계 개편을 통해,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상향 평준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안에는 통합 기관 교원 자격 기준과 양성 계획, 처우 개선 및 시설 개선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유아 교육계에서는 해당 내용들이 일반적 개요 정도에 불과하다는 반응입니다. 세부 계획이 부족한 원론적 내용만 담긴 보고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원도내 유아 교육계도 걱정이 큼니다. 현재 도내 어린이집은 840여 곳, 유치원은 350여 곳입니다. 도내 어린이집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4000억원에 달합니다. 강원특별자치

도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을 운영하는 등 제도 정착에 힘쓰고 있으나, 교육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아 막막한 상황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기때문에, 지침이나와야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에 있던 보육 예산을 어떤 식으로 교육청에 이관할지, 이관된 어린이집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 등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 발표가 늦어지면서 현장에서 우려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도내 유아 교육계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영세 어린이집의 원아 모집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까하는 불안감이 있다고 합니다.

유보 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 방식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시도 교육청의 정원 증원 요청 및 검토를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에도 나설 구상입니다. 정책의 성패 여부는 예측 가능성에 있습니다. 일선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어린이집과 학부모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세부적인 실행 계획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江原日報

2024년 04월 01일 (월)

사설/칼럼 19면

출생아 수 갈수록 감소, 지역소멸 현실화되나

도내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올 1월의 강원지역 출생아 수는 618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4명(-8.0%) 줄었다. 1월 기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같은 달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組)출생률은 4.8명으로 1년 전보다 0.4명 축소됐다. 올 1월 도내 사망자 수는 1,299명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면서 681명 자연 감소했는데 이는 역대 1월 중 가장 큰 규모다. 도내 인구 자연 감소 현상도 2016년 7월부터 90개월 연속 이어졌다. 전쟁도, 재난도 아닌 인구 감소로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치솟는 주거비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청년들의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다”는 호소가 더욱 가슴에 와닿는다.

아이가 사라지면서 도내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1만명 선 아래로 내려갔다. 앞으로도 도내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 신입생이 없어서 교문을 닫아야 할 학교 역시 늘고 있다. 학교 통폐합, 인구 감소, 지역 황폐화 등의 악순환에 지역소멸 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은 지자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인구 감소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지방소멸에 이어 국가소멸에 이를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중앙정부와 함께 각 자치단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시와 달리 농촌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여러 여건 자체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낱알이 심각해지는 인구절벽 위기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생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혼과 출산 기피, 빈부 격차, 경쟁구도와 같은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또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회, 기업 등이 일체가 되어 하루 빨리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원 배분의 틀을 바꾸고 교육과 취업, 기업 인사 제도와 노동 관련 법제를 모두 출산 친화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새로운 발상으로 저출생 극복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더 늦기 전에 출산율 제고를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야 한다.